

# 논리중심치료에 대한 규칙 제공자로서의 청암사상\* \*\*

이 영 의

**주제분류** 철학치료, 실천추리

**주요어** 철학치료 정체성, 철학적 병, 청암사상, 논리중심치료, 인문치료

**요약문**

20세기 이후에 등장한 후기 산업사회의 본질을 보여주는 대표적 특징은 그 사회가 물질적으로 풍요롭지만 정신적으로는 풍요롭지 못하다는 점이다. 이 글의 목표는 후기 산업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철학적 병을 치료하는 방안으로서 철학치료분야에서 최근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논리중심치료(logic-based therapy)를 추천하고, 치료를 위한 규칙 제공자로서의 청암(靑岩) 박태준의 사상을 분석하는 데 있다. 이 글에서 나는 철학치료의 본질은 사고의 혁신에 있다고 보고, 사고의 혁신을 위한 적합한 치료 모형으로서 논리중심치료를 검토할 것이다.

논의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2절은 삶의 건강의 의미를 간략히 살펴보고, 마음의 병의 두 가지 유형을 제시하면서 그 중에서 철학적 병의 특징을 중점적으로 논의하며, 철학치료의 정체성을 의학치료와 심리치료와의 비교를 통하여 분석한다. 3절은 논리중심치료에 나타나는 실천추리의 구조를 제시하고 구체적 사례를 통하여 그 성격을 검토한다. 4절은 청암사상을 철학적 차원과 이념적 차원에서 검토하고 그로부터 논리중심치료를 위한 규칙들을 유도한다.

\* 이 논문은 2007년 정부(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7-361-AM0056).

\*\* 실험철학적 성격이 강한 이 논문을 심사하고 소중한 논평을 해 준 심사위원들에게 감사드린다.

## 1. 들어가기

문명학자 벨(Bell, 1973)은 후기 산업사회의 성장 동력은 정보 기술이며, 그 기술은 이전의 사회문제들을 극복하고 새로운 단계의 사회변동을 주도할 것이라는 낙관론을 제시했다. 벨이 예측한대로 인류는 각종 제한과 질병 및 고통으로부터 해방되고 있으며, 각종 통계 자료가 보여주듯이 물질적으로는 과거 어떤 시대보다도 더욱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다.

그러나 후기 산업사회의 풍요는 긍정적인 측면만을 갖는 것은 아니다. 후기 산업사회에서는 물질과 정신의 간극이 더 벌어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 산업 선진국들에서 볼 수 있듯이 물질적 풍요를 나타내는 지수가 증가할수록 정신적 빈곤을 나타내는 지수도 증가하고 있다. 이 점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로서 미국정신의학회가 발행하는 『정신장애 진단통계편람』(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이 있다. 1952년에 출판된 『DSM-I』은 106 종류의 정신장애를 제시하는데 비해 1994년에 출판된 『DSM-IV』는 무려 297 종류의 정신장애를 분류하고 있다. 정신과 물질의 불균형은 개인적 차원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도 심각한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다. 시대가 후기 산업사회로 진입하면서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다양한 사회 병리적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특히 자살, 학생 폭력, 가족 해체 등과 같은 사회 현상들이 만연하고 있다.

왜 물질적 풍요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정신적 빈곤이 만연하는가? 그 대답은 철학의 빈곤에 있다. 물질적 풍요는 가치중립적이며 칼날처럼 이중적 측면을 갖는다. 우리가 물질적 요소를 적절히 통제할 수 있는 정신력을 갖고 있는 경우 물질적 풍요는 좋은 것이지만 우리에게 그런 정신력이 부족한 경우 역사가 보여주듯이 물질적 풍요는 오히려 정신적 혼돈으로 이어지게 된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순위(GDP)는 2011년을 기준으로 세계 15위이고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의 품질은 세계 1위를 차지하

고 있지만, 자살률과 이혼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회원국 34 개국 중 1위이며 삶의 질은 27위에 그치고 있다. 이런 점에서는 21세기 초반의 한국인은 물질적으로 풍요롭지만 정신적으로는 풍요롭지 못한 사회에 살고 있다. 우리가 후기 산업사회의 특징인 정신과 물질의 간극을 방치하고 오직 물질적 차원의 성장에만 치중하면 우리는 더욱 더 정신적으로 황폐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사회 전반적으로 이에 대한 관심과 치료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 글의 목표는 후기 산업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철학적 병을 치료하는 방안으로서 철학치료분야에서 최근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논리중심치료(logic-based therapy)를 추천하고, 치료를 위한 규칙 제공자로서의 청암(靑岩) 박태준의 사상을 분석하는 데 있다. 이 글에서 나는 철학치료의 본질은 사고의 혁신에 있다고 보고, 사고의 혁신을 위한 적합한 치료 모형으로서 논리중심치료를 검토할 것이다.

논의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2절은 삶의 건강의 의미를 간략히 살펴보고, 마음의 병의 두 가지 유형을 제시하면서 그 중에서 철학적 병의 특징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철학치료의 정체성을 의학치료와 심리치료와의 비교를 통하여 분석한다. 3절은 논리중심치료에서 나타나는 실천추리의 구조를 제시한다. 4절에서는 청암사상을 철학적 차원과 이념적 차원에서 검토하고 그로부터 논리중심치료를 위한 규칙들을 이끌어 낼 것이다.

## 2. 철학치료

현대사회에서 정신질환은 일차적으로 의학치료의 대상이며 심리치료를 비롯한 다양한 치료(therapy)들은 의학치료를 보완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렇다면 철학치료는 정신질환에 대한 일반적 이해의 틀에서 어떤 위상을 차지하는가? 철학치료는 의학치료나 심리치료와 어떻게 다른가? 철학이 어떻게 정신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은 철학치료의

정체성을 겨냥하고 있다.

건강은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을 갖는다. 건강한 삶의 본질은 개인적으로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사회적으로 이웃과 잘 어울려 사는 데 있다. 건강의 반대는 질병이다. 건강치 않으면 반드시 병에 걸리는 것은 아니지만 개인적 차원이나 사회적 차원에서 건강을 잃으면 병에 걸리기 쉽다.

인간은 동물이지만 다른 동물과는 달리 주어진 환경에 생물학적으로 적응해 나가는 존재가 아니라 삶의 의의와 목적을 추구해가는 존재이다. 인간이 그런 차원을 추구할 수 있기 위한 필요조건들이 있다. 우선 인간은 환경 속에서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데 그것은 자율적일 수도 있고 인위적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인간은 정상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더운 날씨에는 땀을 분비하고 추운 날씨에는 옷을 입는다. 생물학자들은 이처럼 생물학적 균형을 유지하려는 경향을 항상성(homeostasis)이라고 부르는데, 스피노자(Spinoza)는 자신을 유지하고 보호하려는 인간의 자연적 본능을 코나투스(conatus)라고 불렀다.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생물학적 항상성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생물학적 차원보다 더 고차원적 균형이 유지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개인적 차원에서의 정신적 균형과 사회 문화적 차원에서의 타인과 사회조직과의 균형 및 소통이 필요하다. 다마지오(Damasio)는 스피노자의 코나투스 개념이 생물학적 항상성을 포함하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하는 정신적 균형뿐 아니라 사회적 균형으로 확장될 수 있다고 보았다.<sup>1)</sup> 다마지오의 견해에 따르면 건강한 삶은 생물학적, 정신적, 사회 문화적 차원에서의 적절한 균형을 바탕으로 성립한다.<sup>2)</sup> 우리는 이제 건강을 생물학적 차원에서의 균형이 유지된 상태라고 보는 좁은 관점에서 벗어나 정신적 차원과 사회문화적 차원에서의 균형까지도 고려하는 포괄

1) A. Damasio(2003).

2) 건강에 대한 이런 이해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제시한 건강에 대한 정의와 일치한다. WHO에 따르면 “건강은 단지 질병이 없거나 허약한 것에 그치지 않고 완전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참살이의 상태이다.” WHO 헌장(1946).

적 관점으로 이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럴 경우에만 우리는 인간의 질병의 유형과 그것을 치료하는 차원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고 아울러 철학치료의 정체성도 파악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앞에서 제시된 건강의 세 가지 차원에 따라 인간의 질병 역시 생물학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병, 정신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병, 사회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병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처럼 건강과 질병을 포괄적으로 이해하게 되면 현재의 의학치료만으로는 질병을 제대로 치료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해진다. 반복하지만 건강은 생물학적, 정신적, 사회 문화적 차원을 갖고 있는데 비해 의학치료는 생물학적 차원과 일부 정신적 차원에만 관여한다.

위에서 언급된 세 가지 차원에서 발생하는 질병을 각각 신체적 병(disease of body), 마음의 병(disease of mind), 사회적 병(disease of society)이라고 하고, 논의의 초점을 마음의 병에 맞추어 보자. 마음의 병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첫째 유형의 마음의 병은 신경생리학적 차원에서 발생하며, 선천성 우울증, 조증, 강박증, 편집증과 같이 뇌의 물리적 결함이나 기능적 장애로 인해 나타난다. 현재의 과학 수준에서 이런 유형의 마음의 병으로 시달리고 있는 환자를 치료하는 방법은 의학적 수술이나 약물치료이다.

둘째 유형의 마음의 병은 철학적 차원에서 발생하는데, 신경생리학적 원인이 아니라 자아, 인생, 사회, 가치와 관련된 이유 때문에 발생한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둘째 유형의 마음의 병을 ‘철학적 병’(philosophical disease)이라고 부를 수 있다.<sup>3)</sup> 철학은 전통적으로 형이상학 및 존재론, 인식론, 논리학, 윤리학, 미학이라는 다섯 분야로 구분된다. 그런 구분을 둘째 유형의 마음의 병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 유형의 철학적 병이 성립한다.<sup>4)</sup>

3) 철학적 병이라는 개념은 엘리엇(Elliott, 1998)이 처음으로 학술적 개념으로 사용했고 국내에서는 김영진(2004)에서 등장한다.

- 존재론적 유형: 삶의 의미 상실, 세계관의 혼란
- 인식론적 유형: 지식의 부족, 지식의 오용
- 논리적 유형: 형식적 오류, 비형식적 오류
- 윤리적 유형: 도덕적 판단의 혼란, 삶과 행동의 괴리
- 미학적 유형: 미적 가치판단의 혼란, 미적 가치에 대한 불감증

신경생리적 차원의 마음의 병과 철학적 차원의 마음의 병을 구분 짓는 또 다른 특징은 첫째 유형의 마음의 병에 걸린 사람은 환자이지만 둘째 유형의 마음의 병은 일상적 의미에서 질병이 아니므로 그 병에 걸린 사람도 환자라고 부를 수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둘째 유형의 병은 정상인이 걸리는 병이다. 그러므로 철학적 병에 걸린 사람들은 일상적 의미에서 환자가 아닌 것은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존적 문제를 안고 있으며 그로 인해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마음에 봉대를 감아야 할 사람’이고 역설적으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환자이다.

사회적 병은 사회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병이며, 사회라는 주체가 앓는 병이다. 사회심리학자들이나 진화심리학자들은 사회적 마음(social mind)이라는 개념을 사용해 왔다.<sup>5)</sup> ‘사회적 마음’이라는 개념이 의미가 있다면, 사회적 마음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병’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한 사회가 특정한 기간 동안 건강을 잃고 병리적 현상을 보인 경우를 많이 보아 왔다. 가장 대표적인 예는 1933년부터 1945년까지 나치정권 하의 독일사회이다. 1933년에 제정된 단종법에 의해 정신장애를 포함한 유전적 결함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 40여만 명이 강제로 불임 수술을 당했고, 1940년에는 T-4 작전을 통해 4천여 명의 장애인들이 살해되었다. 또한 1935년에 제정된 뉘른베르크 법에 의해서 유대인들은 독일 시민권을 박탈당하고 공직으로부터 추방되었고, 1938년 11월 9일에 유대인 상점들이 파괴되는 사건이 발생했고 그 이후로 대대적인 유대인 학살이 이루어졌다. 우생학적 관점에서 행해진 강제 불임수술이나 장애인

4) 이영의(2010).

5) B. J. Ellis and D. F. Bjorklund(2004).

살해, 유대인 박해 및 학살 등이 행해진 당시 독일사회는 “이성이 마비된 상태”에 있었다. 사회적 병의 또 다른 예는 1950년부터 1954년까지 매카시즘(McCarthyism)이 휩쓸었던 미국사회이다. 당시 미국사회는 매카시 상원의원의 근거 없는 정치적 선동에 이끌려 반공산주의라는 광기에 휩싸였고, 수만 명의 무고한 시민들이 공산주의자이거나 공산주의에 동조했다고 고발당하여 정부 기관이나 각종 위원회의 심문을 받았다.

여러 사상가들이 사회적 병을 진단해 왔다. 예를 들어, 마르쿠제(Marcuse)는 1964년에 출간된 『일차원적 인간』에서 고도로 발달한 산업사회는 기술에 의해 규제된다는 점에서 1차원적이라고 주장했다. 1차원적 사회에서는 진보와 변화를 가능케 하는 내면적 모순이 허용되지 않는다. 기술은 풍요를 낳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사회는 ‘과다소비병’에 걸리게 된다. 마르쿠제가 진단한 소비중심사회에서 대중들은 광고와 선전에 현혹되어 거짓된 욕구(false needs)를 충족시켜주는 대상들을 추구함으로써 그렇지 않았더라면 달성할 수 있는 보다 나은 사회에 대한 꿈을 포기하게 된다. 여기서 거짓된 욕구는 “특정의 사회적 이해관계가 억압된 상태에 처한 개인에게 부과된 고통, 공격성, 비참, 불의를 영속시키는 욕구들이다.”<sup>6)</sup>

이 글에서 제시된 질병의 분류는 김영진의 견해에 영향을 받았다. 김영진(2004)은 질병을 크게 육체적 병, 신경정신과적 병, 철학적 병으로 구분한다. 김영진에 따르면, 철학적 병은 (가) 육체적 증세가 나타나지 않으며, (나) 신경정신과적 병과 비슷한 점이 있지만 다른 점이 더 많고, (다) 다른 병들보다 더 가치 지향적이며, (라) 자신보다는 타인에게 고통과 어려움을 준다는 등의 특징을 갖는다.<sup>7)</sup> 철학적 병의 대표적 예로서는 광신적 민족주의, 효(孝)이기주의, 패거리주의, 왜곡된 주체사상, 의리주의, 왕따 등이 있다. 이 글에서 제시된 첫째 유형의 마음의 병은 김영진이 분류한 신경정신과적 병에 해당하고, 둘째 유형의 마음의 병과 사회

6) H. Marcuse(1964), 8쪽.

7) 김영진(2004), 35-36쪽.

적 병은 김영진의 철학적 병에 해당한다. 그렇지만 이 글에서 제시된 분류는 김영진의 분류와 약간의 차이점을 갖고 있다. 나의 분류에서는 철학적 병은 철학적 특징을 갖는 개인적 차원의 병이지만, 김영진이 분류한 철학적 병은 개인의 마음보다는 사회적 마음에서 발생한다. 이 글에서 사회적 병을 둘째 유형의 마음의 병과 구별한 이유는 병의 주체를 개인과 사회로 구별하는 것이 병을 치유하는 데 있어 방법론적으로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한 사회가 특정한 사회적 병을 앓을 때 건강한 사회 구성원의 존재와 역할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양자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 그런 구별이 필요한 또 다른 이유는 사회는 단순히 개인들의 집합이 아니라 구성원들 간 제도적, 사회적, 문화적 관계에서 성립하기 때문에 사회적 마음에서 발생하는 병을 ‘철학적 병’이라고 총칭하는 데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마음의 병은 경우에 따라서는 두 가지 유형에 동시에 속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예는 우울증이다. 우울증의 원인은 여러 차원에서 설명되고 있는데, 신경생리학적으로는 도파민이나 세라토닌과 같은 신경전달물질의 결핍 때문에 발생한다고 가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울증과 관련된다고 과학적으로 밝혀진 신경전달물질들의 방출을 촉진하는 약들이 속속 개발되고 있는데, 프로잭(Prozac)이 그 대표적 예이다. 우울증 환자는 프로잭을 복용하면 한동안 우울한 기분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지만 프로잭이 우울증의 유일한 치료제가 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우울증은 두 가지 유형의 마음의 병에 속하기 때문이다. 메리노프(Marinoff)는 이 점을 적절히 지적하고 있다. 메리노프는 우울증이 뇌의 이상, 암페타민이나 알코올의 부작용, 어릴 적 정신외상, 도덕적이나 경제적인 딜레마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sup>8)</sup> 이처럼 우울증이 다양한 차원에서 발생한다면 그것을 다양한 차원에서 치료해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말이다. 뇌의 이상이나 암페타민이나 알코올의 부작용으로 인한 우울증은 신경과와 정신과의 치료 대상이고, 정신외상으로 인한 우울증은

---

8) L. Marinoff(1999), 32-34쪽.

심리치료와 철학치료의 대상이고, 도덕적이나 경제적 딜레마로 인한 우울 증은 철학치료의 고유한 대상이다.

지금까지 건강 개념과 질병의 유형을 검토해 보았는데 그 작업은 철학 치료의 정체성을 논의하는 예비적 단계에 해당한다. 이제 철학치료의 정체성을 논의해 보자. 철학치료를란 무엇인가? 모든 치료가 그렇듯이 철학 치료가 치료를 지향한다면 치료의 대상과 방법이 있을 것이고, 그 대상이나 방법이 고유할수록 철학치료의 정체성은 명확해질 것이다. 피터맨 (Peterman)이 지적했듯이 치료의 기본 구조는 건강 개념과 그것과 관련된 질병 개념으로부터 출발하여 질병으로부터 건강에 이르는 수단을 제시하는 데 있다.<sup>9)</sup>

철학치료의 정체성을 파악하는 데 적합한 방법은 그 역사를 살펴보는 것이다. 철학이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치료할 수 있다는 생각은 서양철학의 경우 일찍이 소크라테스에서 발견된다. 소크라테스는 한 권의 저술도 남기지 않았지만 그는 ‘치료로서의 철학’을 실천했다. 소크라테스는 인생 문제들이 자신의 무지를 자각하지 못한 것으로부터 비롯된다는 점과 지식과 실천은 별개가 아니라 하나(知行合一)라는 점을 강조했다. 소크라테스 이후 서양철학의 주 흐름은, 에피쿠루스(Epicurus)나 니체(Nietzsche)와 같은 예외가 있긴 하지만, 점차로 삶으로부터 멀어지고 추상적 분석에 치중하게 된다. 현대 철학치료는 한편으로는 삶의 현실과 떨어진 강단철학에 대한 반발로부터, 다른 한편으로는 심리치료에 대한 반발로부터 성립했다. 아헨바흐(Achenbach)는 1981년 현대적 철학실천(philosophical practice)을 시작했고 국제철학실천협회(International Society for Philosophical Practice)를 창설함으로써<sup>10)</sup> 철학치료가 독립된 분야로 자리를 잡는 데 크게 공헌했다. 아헨바흐의 활동 이후 미국에서

9) F. Peterman (1992), 2쪽.

10) 이 글에서는 철학치료와 관련된 여러 가지 명칭들(철학상담, 철학실천, 임상철학 등)의 차이를 무시하고 철학치료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철학치료와 관련된 다양한 철학 활동에 대한 논의는 이진남(2007) 참조.

도 철학치료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이스라엘, 캐나다 등으로 퍼졌다. 한국에서는 2009년 한국철학상담치료학회가 창립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오사카대학을 중심으로 임상철학이 연구되고 있다.<sup>11)</sup>

독일과 미국에서 철학치료를 대표하고 있는 아헨바흐와 메리노프는 철학치료에 대한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철학치료의 목적에 관한 한 다음에서 볼 수 있듯이 의견 일치를 보이고 있다.

- 아헨바흐: 철학실천의 목적은 사람들이 적절한 주제들에 대해 자신들의 생각을 개발하는 자유공간(free space)을 제공하는 데 있다.<sup>12)</sup>
- 메리노프: 철학상담가의 목적은 대화를 통해 내담자들이 직면한 문제의 종류를 이해하고 그 문제의 요소들과 함축을 풀어나가고 분류하도록 돕는 것이다.<sup>13)</sup>

이제 우리는 앞에서 제시된 건강 및 질병과 철학치료의 목적을 결합하여 다음과 같이 철학치료를 정의할 수 있다.<sup>14)</sup>

- 철학치료는 마음의 병과 사회적 병을 철학적으로 해석하고 분석하여 건강한 마음에 도달하기 위해 훈련된 철학자와 내담자가 함께 참여하는 실천이다. 철학치료의 본질은 내담자로 하여금 자신과 세계에 대해 반성하여 삶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찾도록 고무하는데 있다.

---

11) 한국철학상담치료학회 홈페이지는 <http://www.philcounseling.net>이고, 오사카대학 임상철학 프로그램 홈페이지는 <http://www.let.osaka-u.ac.jp/clph/english.html>이다.

12) G. Achenbach(2010).

13) L. Marinoff(1999), 9쪽.

14) 비트겐슈타인이 지적했듯이 철학치료에 대한 필요충분조건을 제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위의 정의는 실험적이다. 철학치료는 다양한 맥락에서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학치료는 여타의 치료들과는 구별될 수 있는 가족 유사성을 갖고 있다.

특정 학문의 정체성을 파악하는 또 다른 방식은 그것과 비슷한 목적, 대상, 방법을 갖는 다른 학문과의 차별성을 이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분자생물학의 정체성은 생화학과의 차이를 통해 설명될 수 있고, 인지심리학의 정체성은 인지언어학과의 차이를 통해 가능하다. 마찬가지로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철학치료의 정체성은 의학치료와 심리치료와의 차이를 통해 이해될 수 있다. 우선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그 세 가지 치료를 구분 짓는 것은 설명적 차원이다. 의학치료의 대상은 신경생리학적 차원의 마음의 병이고, 심리치료의 대상은 신경생리학적 차원보다 더 상위차원인 심리 현상적 차원에 속하는 마음의 병이다. 철학치료의 대상은 둘째 유형의 마음의 병과 사회적 병이며 그것들은 심리학적 차원보다 더 상위차원인 철학적 차원에 속한다. 정리하면 의학치료, 심리치료, 철학치료는 각각 맨 하위의 신경생리학적 차원으로부터 차례로 심리 현상적 차원, 철학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마음의 병을 다룬다.

이제 의학치료와 심리치료와의 비교를 통하여 철학치료의 정체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기로 하자.

#### (1) 철학치료와 의학치료

첫째 유형의 마음의 병은 신경과나 정신과에서 치료되고 있으며 정신 의학적 병, 또는 간단히 정신병으로 불리고 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정신병은 부정적으로 이해되어 왔으며 그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수용되거나 권리를 행사하는 데 있어서 법률적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볼 수 있듯이 정상이 아닌 사람으로 취급된다. 그러나 철학치료의 대상인 둘째 유형의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앞에서 지적했듯이 환자가 아니라 정상인이다.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며 종종 한계상황에 처하는 존재이다. 따라서 둘째 유형의 마음의 병은 정상인의 병이라는 점에서 일상적 의미에서의 질병이 아니며 그 때문에 여기서 치료는 비유적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sup>15)</sup>

15) 이런 이유로 ‘치료’라는 용어 대신에 ‘치유’라는 용어를 사용하자는 제안이 있지

철학치료와 의학치료의 또 다른 차이는 치료 방법에 있다. 철학치료에는 의학치료처럼 수술이나 약물이 사용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철학치료는 어떻게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가?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철학치료는 ‘철학적 수술’과 ‘철학적 약’으로 마음의 병을 예방하고 치료한다. 철학치료의 중요한 두 방법인 수술과 약의 차이는 치료사의 역할과 개입 정도에 달려있다. 둘째 유형의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내담자가 스스로 자신의 병을 진단하거나 치료할 수 없을 경우에 철학치료사는 대화와 반성적 사고와 같은 ‘메스’를 사용하여 환부를 직접 수술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철학적 약의 사용은 간접적이다. 철학적 약의 대표적인 예는 다양한 종류의 삶의 지혜와 사상이 담겨있는 철학적 책인데, 내담자는 철학치료사의 권유와 처방에 따라 철학적 약을 복용함으로써 자신의 병을 치료할 수 있다.<sup>16)</sup>

‘철학이라는 이름의 약국’은 다양한 약을 구비하고 있는데, 철학 약국이 제공하는 약들은 프로잭과 달리 약물 부작용이 없을 뿐더러 둘째 유형의 마음의 병과 사회적 병을 치료하는 데 효능이 매우 크다고 알려져 왔다. 그러나 철학적 병에 걸린 환자들이 자신의 병에 어떤 약이 효능이 있는지를 잘 모를 뿐더러 설사 알더라도 그것을 직접 읽고 소화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다. 이런 이유로 아리스토텔레스, 니체, 사르트르 등의 약을 처방하거나 그것을 이용한 수술을 시행하는 전문가가 필요한데 그들이 바로 철학치료상담사이다.

## (2) 철학치료와 심리치료

심리치료와 철학치료는 상호 보완적이면서도 경쟁 관계에 있는데.<sup>17)</sup>

---

만, 그 두 용어의 의미를 구별하기가 어려울 뿐더러 그런 구별이 일상적 용법인 지도 분명치 않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치료’라는 말을 사용하기로 한다.

16) 첫째 유형의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경우에도 의학치료를 마친 환자들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정신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철학치료를 거쳐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양자는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다.

17) G. Achenbach(1995), 64쪽.

양자가 그런 관계를 갖게 된 데에는 역사적 이유가 있다. 심리학은 1789년 분트(Wundt)가 정신물리학 실험실을 개설하면서 철학으로부터 독립하여 점차 과학화되어 왔다. 심리학에 기반을 둔 심리치료는 20세기에 들어서 급속도로 발전하여 정신분석, 아들러 심리치료, 분석치료, 내담자 중심치료, 합리적 정서행동 치료, 인지치료, 실존치료, 게슈탈트 치료 등 다양한 학파들이 등장했고 그 학파들이 개발한 방법은 수백 가지에 이른다.<sup>18)</sup> 심리치료 이론 및 방법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학파를 초월한 공통점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심리적 장애를 유발한 원인을 밝혀서 제거하는 전략을 취한다는 점이다. 이런 전략 때문에 심리치료는 심리 현상의 부정적 측면에 주목하고 긍정적 측면을 간과해 왔다.<sup>19)</sup>

심리치료와 철학치료의 차이는 그것들이 제공하는 설명 유형에서 드러난다. 심리치료는 심리적 장애를 야기하는 생리적 또는 심리적 원인을 밝혀 그것을 제거하는 전략을 취하기 때문에 인과적 설명을 추구한다. 이에 비해 철학치료는 문제의 원인이 아니라 그 문제에 이르게 된 추리의 정당화를 추구한다.<sup>20)</sup> 예를 들어 아리스토텔레스는 실천추리를 통하여 유익하지 못한 결론이 나타나게 된 추리의 전제를 검토하라고 권유했다. 코헨(Cohen)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에 따라 심리치료의 합리적 정서행동치료(Rational emotive behavior therapy, REBT)를 수정하여 논리적 치료(Logic-based therapy, LBT)를 제안했다.<sup>21)</sup>

아헨바흐는 철학치료와 심리치료가 구체적인 삶의 문제에 초점을 둔다

18) R. Corsni and D. Wedding (2008).

19) 긍정심리학(positive psychology)은 이런 배경에서 등장했다. 긍정심리학은 억압이나 자동적 사고와 같은 부정적 요인이 아니라 삶의 긍정적 가치를 발견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길을 연구한다. 기존의 심리치료가 첫째 유형의 마음의 병에 주목한 데 반하여 긍정심리학은 둘째 유형의 마음의 병에 주목한다. 긍정심리학의 창시자인 셀리그먼(Seligman)은 인류가 그 동안 높이 평가해 온 가치로서 지혜, 용기, 인간성, 정의, 절제, 탁월성을 제시하고 그것들을 삶에서 구현하는 구체적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C. Peterson and M. P. Seligman(2004).

20) E. Cohen(2007), 7쪽.

21) 철학치료에 대한 논리적 접근은 3장에서 논의된다.

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철학치료는 확실성을 추구하지 않고 철학적으로 반성하는 회의적 태도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리치료와 구별된다고 주장한다. 철학치료의 정체성은 철학적 경험에서 유래하는데 그 본질은 일상성으로부터의 탈출이다.<sup>22)</sup> 그러므로 철학치료의 목적은 옳고, 해결되었고, 결정적이고, 여심의 여지가 없다고 간주하는 일체의 것에 대한 철학적 회의주의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헨바흐는 철학치료와 심리치료의 관계가 원래의 분업 관계에서 상호 협력과 경쟁의 관계로 이행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왜냐하면 한편으로는 양자를 엄격히 분리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불가능하기 때문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심리치료에 이미 철학적 요소들이 널리 퍼져있기 때문이다.<sup>23)</sup> 아헨바흐에 따르면 철학적 요소를 도입한 심리치료들, 특히 로고 테라피 (Logo therapy), 인지치료, 긍정심리학 등은 일종의 철학실천에 해당한다.

### 3. 논리중심치료

서양철학에는 대륙철학과 분석철학이라는 두 가지 큰 흐름이 있다. 대륙철학은 독일과 프랑스 등에서 주로 연구되고 있으며, 생철학, 해석학, 현상학, 실존철학, 후기구조주의 등으로 나타났다. 분석철학은 주로 영어권에서 연구되어 왔는데 18세기 로크(Locke), 버클리(Berkeley), 흄(Hume)의 경험론을 통해 흐름을 형성했고, 논리원자론(Russell, 전기 Wittgenstein), 논리 실증주의 및 논리 경험주의, 일상언어철학(Moore, Austin, 후기 Wittgenstein) 등으로 전개되어 왔다. 분석철학을 간단히 규정하기 어렵지만, 여러 가지 형태로 출현한 분석철학들은 상호간 가족 유사성(family resemblance)을 갖고 있다.

분석철학에서 나타나는 가족 유사성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한 가지 표준적 대답은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에서 발견된다. 비트겐슈타인의

22) G. Achenbach(1995), 72쪽.

23) Ibid. 73쪽.

철학은 크게 두 시기로 구분되는데 전기는 논리적 분석에 치중했던 시기이고 후기는 일상언어분석에 치중했던 시기이다. 비트겐슈타인의 전기 철학의 핵심은 사고의 명료화에 있다. 비트겐슈타인은 “세계는 사실의 총합이 아니라 사태의 총합이다”라는 통찰력 있는 주장을 함으로써<sup>24)</sup> 스승인 러셀을 놀라게 했다. 비트겐슈타인에 따르면 자연 세계와 언어 세계라는 두 세계가 있다. 자연 세계는 사물들로 구성되며 언어 세계는 명제들로 구성된다. 언어의 기능은 자연 세계를 사실화처럼 있는 그대로 그려내는 것이므로 명제의 진위는 자연 세계에 대한 기술의 정확성에 달려 있다. 그런데 일상언어는 온갖 중의성과 모호함을 갖고 있으므로 사고를 명료화하기 위해서는 기호논리학과 같은 인공언어를 도입해야 한다. 논리실증주의는 논리적 분석과 경험을 강조했는데 여기서 강조된 논리적 분석은 비트겐슈타인의 전기 사상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

비트겐슈타인의 후기 사상은 전기 사상에 대한 부정으로부터 출발한다. 후기 비트겐슈타인 철학의 핵심은 일상언어에 대한 존중과 치유로서의 철학이다. 후기 비트겐슈타인에 의하면 일상언어는 의사소통하는 데 아무런 손색이 없다, 우리가 일상언어의 중의성과 애매함에 대해 투덜대는 것은 언어의 본질을 잘못 파악한 데 있다. 우리는 결코 일상용어들의 의미에 대한 필요충분조건을 제시할 수 없으므로, 의미는 필요충분조건이 아니라 쓰임에서 발견된다. 예를 들어 망치의 필요충분조건을 제시할 수는 없지만 드라이버와는 다른 쓰임을 갖는다.<sup>25)</sup> 이제 철학의 임무는 의미의 명료화가 아니라 파리통에 빠진 파리에게 출구를 가르쳐 주는 것처럼<sup>26)</sup>, 일상언어의 쓰임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철학이라는 파리통’에 빠진 철학자들에게 출구를 제시하는 치료적 역할에 있다.

24) “Die Welt ist die Gesamtheit det Tatsachen, nicht der Dinge.” L. Wittgenstein (1921), § 1.1.

25) 비트겐슈타인의 전기 사상(1922)은 그림 이론(picture theory), 후기 사상(1953)은 게임이론(game theory)이라고 불린다.

26) Ibid., 133쪽.

이상의 지적 배경을 토대로 논리중심치료의 골격을 살펴보기로 하자. 이 글에서 검토되는 논리중심치료는 코헨(Cohen)이 제시한 것으로서<sup>27)</sup> 아리스토텔레스의 실천삼단논법(practical syllogism)에 기반을 두고 있다. 코헨의 논리중심치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실천삼단논법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실천삼단논법은 다음과 같은 형식을 갖는다.

• 실천삼단논법의 구조

대전제: 삶의 목적인 덕(德)은 상황 X에서 Y를 실행하는데 있다.

소전제: 나는 현재 상황 X에 처해 있다.

---

결론: Z를 한다.

위에서 제시된 실천삼단논법은 연역 추리이다. 그러므로 추리의 대전제와 소전제가 주어지면 행위자는 마땅히 결론에 나타나는 행위를 하게 된다. 반면에 실천추리에서 소전제를 그대로 두고 기존의 대전제를 다른 대전제를 대체하면 다른 결론이 유도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다음의 추리를 살펴보자.

• 추리 1

덕스런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단 것을 맛보아서는 안 된다.

이것은 단 것이다.

---

이것을 맛보아서는 안 된다.

• 추리 2

덕스런 삶을 누리는 데 있어 단 것은 기쁨을 준다.

이것은 단 것이다.

---

이것을 맛보겠다.

---

27) E. Cohen(2003, 2007).

코헨의 논리중심치료의 특징은 실천삼단논법을 철학치료에 그대로 적용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상담 치료적 특징을 부가했다는 데 있다. 즉 코헨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실천삼단논법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심리치료의 합리적 정서 행동치료(rational-emotive behavior therapy, REBT)를 도입하여 행위뿐만 아니라 정서에도 적용될 수 있는 모형을 개발했다. 철학치료 모형으로서의 논리중심치료는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갖는다.

• 논리중심치료의 구조

(정서적, 행위적) 규칙  
(현실에 대한) 보고문  
행동 또는 정서

위에서 볼 수 있듯이 논리중심치료의 결론은 행동이나 정서인 반면에 실천삼단논법의 경우 결론은 행위임에 유의하라. 행위는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행위, 몸짓, 움직임을 말하고 행동은 그런 행위를 수반하게 만드는 마음의 작용이다. 이런 차이점을 감안하면 논리중심치료의 결론은 마음의 작용(행동)이나 상태(정서)라는 점을 알 수 있고, 이 점이 바로 논리중심치료의 심리치료적 성격을 드러낸다. 그러나 코헨이 주장했듯이 논리중심치료는 그것의 모태인 합리적 정서 행동 치료와 근본적인 차이점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논리중심치료는 행동이나 정서에 대한 합리적 재구성이나 정당화를 제공하는데 비하여 합리적 정서 행동 치료는 결론에 대한 인과적 설명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논리중심치료가 적용될 수 있는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자. 철수는 언어장애가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놀림을 받아왔다. 그러던 어느 날 철수는 우연히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에서 자동차 경주를 하는 친구들을 보았다. 철수는 그들과 친해지고 싶었고 그 결과 그들과 함께 자동차 경주에 참가하게 되었다. 그러나 불행히도 철수는 그 경주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속도로 펜스를 들이받고 몇 달 동안 의식불명상태에 있다가 결국 사망하고 말았다.<sup>28)</sup> 왜 철수는 그런 비극적 결과를 낼 수 있는 행동을 하게 되었는가? 만약 철수가 철학치료사에게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 했더라면 철학치료사는 철수에게 다음의 두 가지 추리를 기교해 보라고 추천했을 것이다.

•추리 3

(규칙) 친구들이 하는 일이면 무엇이든지 참여해야 한다.

(보고) 친구들이 자동차 경주를 한다.

(행동) 자동차경주에 참여하겠다.<sup>29)</sup>

위의 추리는 추리 당사자인 철수에게 불행한 결과를 낳는다. 한편 철수는 다른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으면 그 추리의 결론은 장차 그에게 이로운 결과를 낳는다.

•추리 4

(규칙) 친구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목숨을 걸 필요는 없다.

(보고) 친구들이 자동차 경주를 한다.

(행동) 자동차 경주에 참여하지 않겠다.<sup>30)</sup>

위의 두 가지 추리에서 드러나듯이 논리중심치료의 핵심은 내담자가 (추리 3)의 대전제를 논박하고 (추리 4)의 대전제를 수용하는 데 있다. 논리중심치료의 일반적 치료 절차는 다음과 같다.

---

28) E. Cohen(2003), 29-30쪽.

29) Ibid., 30쪽.

30) Ibid., 32쪽.

- 논리중심치료의 치료 절차
  - (1단계) 실천추리 확인
  - (2단계) 오류적 전제 확인
  - (3단계) 오류를 극복할 수 있는 덕 확인
  - (4단계) 덕을 함양할 수 있는 해독제 확인

제2단계는 예비적 단계로서 앞에서 제시된 실천추리의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다. 즉 추리를 구성하는 대전제와 소전제 및 결론을 확인한다. 치료는 2단계부터 시작되는데 먼저 내담자에게 해로운 결과를 발생하는 것은 추리의 전제에 있기 때문에 그런 오류를 낳는 전제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추리의 오류는 대전제인 행위 규칙에 있거나 아니면 소전제인 상황보고에 있거나 또는 양자가 모두에 있을 것이다. 논리중심치료에서 치료는 바람직하지 못한 결론을 낳는 규칙들을 확인하고 그것들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 규칙을 찾는 데 있다. 나중에 논의되겠지만 청암사상은 이 분야에서 논리중심치료에 기여한다.

다음은 코헨이 제시한 11가지의 대표적인 오류적 규칙들의 목록이다.<sup>31)</sup>

- 행위적, 정서적 차원에서의 오류 규칙
  - 완벽 추구
  - 비관적 상황 판단
  - 자신과 타인에 대한 저주
  - 시류 편승
  - 부정적 태도로 자신의 창의력 억압
  -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속상하게 만들
  - 자신의 목적달성을 위한 약자 괴롭힘, 거짓말, 우물에 독 넣기
  - 자기중심주의

---

31) E. Cohen(2007), 6-7쪽.

- 보고 차원에서의 오류적 규칙  
현실 단순화  
가능성 왜곡  
근거 없는 추측

위에 제시된 오류적 규칙들이 확인되면 그 다음 치료 단계에서 해야 할 일은 그런 규칙들을 전제로 갖는 오류적 추리를 초월할 수 있는 덕들을 확인하고(3단계), 그 덕들을 함양할 수 있는 해독제(antidote)를 찾는 것이다.(4단계)<sup>32)</sup> 예를 들어 비극적인 죽음을 당한 철수처럼 시류에 편승하는 규칙을 갖는 추리를 하려는 경향이 있는 내담자의 경우 자신의 삶의 고유성을 인정하는 덕들이 필요하다. 논리중심치료가 철학치료인 것은 그런 덕들을 철학 사상에서 찾는 데 있다. 코헨은 다양한 철학자의 사상과 저서에서 발견되는 해독제들을 추천하고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동양철학이 제공하는 해독제는 포함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철학상담가들이 해야 할 하나의 과제가 여기서 발견된다.

#### 4. 청암사상

앞 절에서 제시되었듯이 철학치료는 의학치료나 심리치료와 달리 자신과 세계에 대한 생각을 변경하여 실존적 문제로 인한 고통을 극복하고자 한다. 에피쿠르스가 일찍이 강조했다듯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사건들 그 자체가 아니라 사건들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다.<sup>33)</sup> 철학치료는 생각치로이며, 정서적으로나 행위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낳는 오류적 추리를 바로잡고자 한다. 이런 점에서 청암사상은 철학치료에서 바람직한 규칙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sup>34)</sup>

32) E. Cohen(2007)은 오류적 추리에 대한 해독제를 제시하고 그에 대한 구체적 예들을 제공한다.

33) Epicurus(1994).

청암 박태준은 얼마 전까지 생존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사회 과학적 연구들은 다수 있었지만 그의 사상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청암사상을 규명하는 두 세 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sup>35)</sup> 나는 여기서 그러한 선행 연구를 활용하여 청암사상의 핵심을 정리하여 그것을 논리중심치료를 위한 규칙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정인재(2011)는 청암사상에 대한 철학적 접근을 시도한다. 정인재의 분석에 따르면 청암사상의 골격은 양명학(陽明學)이며, 청암과 왕양명은 비슷한 성격과 삶을 살았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sup>36)</sup>

청암은 어린 시절부터 대학 시절까지 일본에서 생활했는데, 그가 양명학을 접하게 된 것은 1945년이었다고 한다. 청암은 히비야 공원에서 열린 일본 양명학의 대가인 야스오카 세이도꾸(安岡正篤) 강연회에 참석하여 “나라를 이끌어나가는 리더십이 갖춰야 하는 제일의 덕목은 사욕을 비우는 것이다. 사욕을 비우는 것이 가장 어렵고 중요하다. 사욕을 비우지 못한 지도자는 자신의 지식과 비전을 자신의 행동과 일치시킬 수 없다”는 말을 듣고 큰 감명을 받았다.<sup>37)</sup> 정인재에 따르면 당시 야스오카가 의도했던 것은 왕양명이 강조했던 지행합일 사상이었고, 청암은 그것을 평생 체화했다. “청암의 사상은 바로 사심 없는 실천(行) 속에서 그의 비전(知)을 이룩한 것(致良知)이기 때문이다.”<sup>38)</sup> 여기서 우리는 지행의 관계에 대한 주자학(朱子學)과 양명학의 차이를 보게 된다. 주자학의 전통에서는 먼저 대상에 대한 지식이 획득되고 그 다음 실행이 따르거나(先知後行), 아니면 지식과 실행이 동시에 진행된다(知行並進). 그러나 이 경우

34) 이 점은 청암 자신의 글과 청암의 삶에 대한 글에서 확인될 수 있다. 박태준(1985), 박태준(2004), 김창호(2009), 권태환(1992), 송복(2011), 안상기(1995), 이대환(2004), 정인재(2011), 조정래(2007), 최동주(2011) 참조.

35) 송복(2011), 정인재(2011), 최동주(2011).

36) 정인재(2011).

37) 이대환(2004), 49쪽.

38) 정인재(2011), 328쪽.

소크라테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무언가를 알고 있지만 그것을 실행하지 않은 경우를 설명해야 하는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 이와 관련하여 왕양명은 지행합일을 주장했는데 여기서 지는 특정 대상에 대한 지가 아니라 무엇을 행할 수 있는 양지(良志)로서의 지이며, 양지를 실현하는 것이 치양지(致良知)이다.<sup>39)</sup>

청암과 왕양명의 두 번째 사상적 공통점은 사농공상(士農工商)을 차별적으로 구분하는 주자학을 비판하고 사민(四民)은 직업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유학의 정신(道)을 같이 한다고 보는 이업동도(異業同道) 사상이다. 이업동도 사상은 당시 상공인들에게 자신의 직업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불어 넣었고 그 결과 유학을 버리고 장사를 선택한 사람도 생기고, 양명후학에 이르러서는 문자를 모르지만 양명학자들의 강연을 듣고 배움을 얻어 상인이나 노동자, 노비들을 가르치는 사람도 생겨났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중국이나 일본과 달리 양명학이 적극적으로 연구되지 않았다. 청암은 조선시대 학자들이 양명학을 배척한 것이 당시의 상업과 산업 발전을 방해하는 사상적 요인이었다고 진단한다.

우리나라 역사를 뒤돌아보면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부정적 요소들이 대부분 조선시대에 뿌리내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양반들이 사농공상(士農工商)이라는 논리에 따라 생산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경멸하고, 쓸데없이 허례허식에 힘을 쓴 결과, 나라의 생산활동과 무역활동이 위축되었던 것입니다.<sup>40)</sup>

이것이 解放後에도 그대로 踏襲되어 거의 대부분의 學徒들은 工人이 되는 길인 自然科學分野 보다는 남을 支配하는 政治나 法律分野를 택했다. 내 아들만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社長, 判檢事, 將軍, 政治家를 만들어 남을 支配함으로써 幸福하고 富裕하게 살아보게 하겠다는 생각이 社會 깊이 뿌리내리고 말았던 것이다.<sup>41)</sup>

39) 맹자(孟子)에 따르면 “양지란 인간이 자연스럽게 갖추고 있는 능력으로서, “배우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것은 양능이고, 생각하지 않고도 아는 것이 양지이다.” “人之所不學而能者, 其良能也. 所不慮而知者, 其良知也”, 『孟子』, 『盡心上』.

40) 김창호(2009), 29쪽.

위에서 나타나듯이 청암은 우리에게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이 부족하다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서양에는 베버(Webber)가 파악한 직업에 대한 기독교적 소명의식이 있고 동양에는 양명학적 소명의식이 있었다. 우리나라에도 조선 초기까지는 장인을 존중하는 정신이 남아 있었다. 세종은 기술인을 중용한 것으로 유명하다, 세종은 기술자들에게 높은 벼슬을 주었고 그들의 근무지를 수도권에 두어서 그들과 늘 가까이 하였다. 사농공상의 시대에 사대부의 자식들이 대과에 급제하고도 과학기술에 전념하고, 관노였던 장영실이 고위직에 이를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기술 존중 문화가 있었기 때문이다.<sup>42)</sup> 청암 역시 자기 직업에 대한 긍지와 충실 및 분명한 직업관이 없는 한 기술 강국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철저히 인식하고 있었다.<sup>43)</sup>

청암은 자연인으로서 사상적 차원에서만 존재했던 것은 아니며 대한민국이라는 현실 세계에 포항제철과 포스텍이라는 커다란 업적을 남겼다. 청암이 남긴 업적들은 그의 사상이 관념적 차원에만 머물렀더라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청암은 앞에서 논의되었듯이 평생을 통해 양명학을 구현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현실에 뿌리내리려고 노력했다. 그런 지행합일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체화된 사상이 관념적 차원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사회적 제도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형태를 취해야 한다.

송복(2011)은 “특수성으로서의 태준이즘(Taejoonism) 연구”라는 논문을 통해 청암사상을 이념으로 파악한다. 송복에 따르면 태준이즘을 구성하는 핵심 사상은 다음과 같다.

- 절대적 절망은 없다.
- 절대적 불가능은 없다.
- 절대적 사익은 없다.

41) 박태준(1985), 105쪽.

42) 손욱(2002).

43) 박태준(1985), 88-89쪽.

여기서 ‘절대적’이라는 말은 청암도 사용하고 있는데, 극한 상황에서 완전히 새롭고 다른 현실을 창조하는 것이고 개인의 사익을 초월하는 것을 의미한다.<sup>44)</sup> 환언하면, 절대성은 상대화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퍼지적 사고를 부정하고 ‘전체 아니면 무’(all or nothing)를 지향한다. 0과 1의 양극단 사이에 존재하는 수많은 중간치들을 인정하는 퍼지적 사고는 오직 0과 1만을 인정하는 고전적 사고에 비해 보다 더 융통성이 있다. 퍼지적 사고를 지닌 사람은 고전적 사고를 지닌 사람보다 더 쉽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융통성과 용이성은 삶을 평가하는 도구적 기준일 뿐 가치적 기준은 될 수 없다는 점이다. 고전적 사고를 지닌 사람이 퍼지적 사고를 지닌 사람보다 인생을 더 어렵게 사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그 사람이 가치론적으로 덜한 삶을 산다는 것을 함축하지는 않는다. 청암은 위에서 언급된 세 가지의 절대성을 추구함으로써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매우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

이 부분에서 한 가지 근본적 의문이 발생한다. 우리나라의 현대사에서 뛰어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이 많은데 왜 굳이 청암사상을 연구해야 하는가? 이병철, 정주영 등 한국의 기업사에 큰 업적을 남긴 인물도 많은데 왜 호암이즘이나 아산이즘이 아니라 태준이즘인가? 이와 관련하여 송복은 이념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뛰어난 업적을 남겨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대처처럼 한 이념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대업적을 남겨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청암은 어떤 대업적을 남겼는가? 송복에 따르면, 그것은 호암이나 아산이 사기업을 일으킨 데 비해 청암은 공기업을 사기업 이상으로 일으켰다는 데 있다.<sup>45)</sup> 청암이 남긴 대업적은 “주인 없는 기업은 반드시 망한다”는 통설을 깨고 포항제철을 세계 공기업의 역사상 전례가 없는 성공적인 기업으로 이끌었다는 점이다.

송복에 따르면 이념은 사상, 리더십, 업적이라는 세 요소를 갖는데, 이

---

44) 송복(2011), 2쪽.

45) Ibid., 4쪽.

글의 관심사인 청암사상에 해당하는 태준이즘은 순명, 성취, 가치로 이루어진다.<sup>46)</sup> 차례로 그것들을 살펴보기로 하자.

첫째, 순명은 목숨을 걸고 목숨을 바치는 것이다. 청암에게 ‘우향우 정신’은 자신에게 주어진 것, 즉 무(無)로부터 일관제철소를 건설해야 한다는 소명에 대한 책임감이 나타난 것이다. 송복은 청암의 경우 순명으로 부터 절대정신이 출현했다고 본다. 여기서 절대정신이란 주객이 하나가 되어 완전한 자기인식에 도달한 정신적 상태를 의미하는데,<sup>47)</sup> 현실적으로 “절대적 절망은 없다”로 표출되었다.<sup>48)</sup> 순명은 초결단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초결단이란 운명을 결정하는 결단으로서 포항제철 입지 선정, 제철소 건설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하와이 구상, 부실공사 건물을 폭파하는 것 등은 그 대표적 예들이다.

둘째, 성취는 매우 어려운 일을 이루어 낸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포항제철을 건설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고 큰일이었다. 그러나 대성취와 사상을 동일시하는 것은 범주착오의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송복은 대성취를 이룩하려는 의지가 이념으로 승화하기 위해서는 사상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청암의 경우 그것은 불가능불용(不可能不容)과 조국애 승화이다. 먼저, 불가능 불용은 절대불가능은 없다는 사상이다. 1967년 청암이 종합제철소 건설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을 당시 우리나라의 국력은 일관제철소를 건설하기에는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당시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총생산(GNP)는 142 달러에 불과했고, 제철소를 건설하기 위한 자본이나 기술은 전혀 없었다. 국제부흥개발은행이나 대한국제철차관단(KISA)과 같은 국제기관들이 한국에 제철소를 건설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당시 그런 판단은 올바른 것이었지만 그 판단이 잘못된 것은 청암이라는 인적 자산을 고려하지 않은 데 있다.<sup>49)</sup>

46) Ibid., 10쪽.

47) Ibid., 12쪽.

48) Ibid., 13쪽.

49) 이를 잘 보여주는 것으로 덩샤오핑 일화가 있다. 덩샤오핑이 신일본제철을 방문하여 중국에 포항제철과 같은 제철소를 건설해 달라고 부탁하자 이나야미 회장

셋째, 가치는 청암의 가치관을 말한다. 송복은 그것을 “절대적 사익은 없다”로 요약할 수 있다고 본다. 여기서 절대적 사익은 절대적으로 추구되는 개인의 이익이다. 자본주의 체계는 개인의 욕망 추구를 인정하기 때문에 약육강식과 무한 경쟁이 필연적으로 따르기 마련이다. 초기 자본주의는 그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그렇다면 어떻게 절대적 사익을 추구하려는 본능을 극복할 수 있는가? 송복에 따르면 그것은 자신을 위해 욕심을 갖지 않는 무사심(無私心)과 결백성이다.<sup>50)</sup>

청암사상에 대한 이상의 논의로부터 우리는 논리중심치료를 위한 바람직한 규칙들을 유도해 낼 수 있다. 청암사상은 일차적으로 다음과 같은 규칙들을 포함하고 있다.

- 이는 대로 행동하라.
- 직업에 귀천은 없다.
- 어떤 경우에도 절망하지 말라.
- 불가능한 일은 없다.
- 공익을 절대적으로 우선하라.

우리는 위에서 제시된 것 보다 더 구체적으로 청암사상이 논리중심치료에 대해 제공할 수 있는 규칙들을 기술할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정교한 규칙들을 구성하고 기술하더라도 그것들은 일차적으로 추상적 차원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구체적 상황을 통해서만 그 효력이 확인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논리중심치료를 위한 규칙들의 집합과 그것들의 효력은 청암사상과 같은 구체적 사상을 삶의 현장에 적용하는 치료 과정에서 드러날 것이다.<sup>51)</sup>

---

은 “박태준 같은 사람이 없으면 포철 같은 제철소를 만들 수 없다”고 대답했다. 박태준(2004), 「당사오평 일화」

50) 송복(2011), 20쪽.

51) 여기에서 요구되는 작업은 지난 5년 동안의 군장병, 죄수, 미혼모,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철학치료 활동을 통하여 진행되고 있다. 그 결과들은 추후 논문을 통

## 5. 마무리

이 글에서 나는 청암사상이 어떻게 철학치료에 공헌할 수 있는지를 논리중심치료를 중심으로 검토했다. 청암사상을 철학치료에 도입하려는 이 글의 전략은 논리를 뛰어 넘었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앞에서 지적했듯이 치료는 이론적 차원뿐만 아니라 실천적 차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중요한 점은 실천적 차원은 이론적 탐구와 구별되는 살고 행위하고 느끼는 영역이며 이론들의 시험장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청암사상을 논리중심치료에 접목하려는 나의 전략에 요청될 수 있는 과제는 다양한 임상 활동을 전개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여 철학적 병, 논리중심치료, 청암사상이 제공하는 규칙들의 실천적 가치를 증명하는 일이 될 것이다.

(강원대학교)

---

해 발표될 예정이다.

## 참고문헌

- 김영진. 2004. 『철학적 병에 대한 진단과 처방: 임상철학』, 서울: 철학과현  
실사.
- 김창호. 2009. 『플러스 알파 리더십 관련사례모음』, 서울: 포스코경영연구소.
- 박성수. 1997. 「21세기 청소년상담모형의 방향」, 『청소년상담연구』 5(1),  
7-38.
- 박태준. 1985. 『나의 경영철학』, 포항: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
- \_\_\_\_\_. 2004. 『남기고 싶은 이야기들』, 중앙일보사.
- 송 복. 2011. 「특수성(特殊性)으로서의 태준이즘(Taejoonism) 연구」, 제1  
회 청암연구포럼 발표문.
- 손 욱. 2002. 「기술강국으로 민족융성, 세종 때의 장영실 나오게 해야」,  
『경제풍월』 6월호.
- 안상기. 1995. 『우리 친구 박태준』, 서울: 행림출판.
- 왕양명. 2007. 『실천적 삶을 위한 지침 傳習錄 1, 2』, 정인재·한정길 옮  
김, 서울: 청계.
- 유권중. 2008. 「동양 고전에서 사용되는 `심병(心病)`의 용례와 의미」,  
『철학탐구』 24, 1-30.
- 이대환. 2004. 『세계최고의 철강인 박태준』. 서울: 현암사.
- 이영의. 2008. 「체화된 마음과 마음의 병」, 『철학탐구』 23(1), 5-37.
- \_\_\_\_\_. 2010. "A more philosophical model of counseling", *Universitas*  
37(1), 35-48.
- \_\_\_\_\_. 2011a. 「철학치료 정체성」, 『철학치료』 1, 5-32.
- \_\_\_\_\_. 2011b, "Philosophical Practice and Humanities Therapy in Korea",  
*Philosophical Practice* 6.1, 734-743.
- \_\_\_\_\_. 2011c, "Methodologies of humanities therapy", *Universitas*, 38(7),  
59-72.
- 이진남. 2007, 「철학상담에 방법론은 필요한가?」, 『강원인문논총』 18,

- 231-253.
- 정갑입. 2011. 「왕양명의 良志와 철학상담」, 『철학논집』 25, 35-58.
- 정인재. 2011. 양명학 관점에서 본 청암의 유상(儒商)정신, 『유교문화연구』 18, 315-352.
- 조정래. 2007. 『박태준』, 파주: 문학동네.
- 진성수. 2010. 「동양철학: 전통교육을 통해 본 현대 청소년인성교육 학습모형의 개발 방안」, 『한국철학논집』 30, 283-310.
- 최동주. 2011. 「내용분석을 통한 청암(靑岩) 박태준의 가치체계 연구 - 허만(Hermann)의 리더십 특성 연구방법(Leadership Trait Assessment)을 중심으로」, 『韓國政治外交史論叢』 33(1), 405-436.
- 최상진. 2000. 『한국인의 심리학』. 서울: 중앙대학교 출판부.
- Achenbach, G. 1987. *Philosophische Praxis*, Köln: Jürgen Dinter.
- \_\_\_\_\_. 1995. "Philosophy, philosophical practice, and psychotherapy", in R. Lahav and M. Tillmanns eds., *Essays on Philosophical Counseling*. Lanham: University Press of America, 61-74.
- \_\_\_\_\_. 2010. "Experience in Philosophical Practice", *Presentation for the 10th ICPP*.
- Audi, R. 2006. *Practical reasoning and Ethical Decision*. London: Routledge.
- Bell, D. 1973. *The Coming of Post-Industrial Society: A Venture in Social Forecasting*, New York: Basic Books
- Cohen, E. 2003. *What Would Aristotle Do?*, Amherst, NY: Prometheus.
- \_\_\_\_\_. 2007. *The New Rational Therapy*, New York: Rowman & Littlefield.
- Corsni, R. and Wedding. D. 2008, *Current Psychotherapies*. 8th edition. Thomson.
- Damasio, A. 2003. *Looking for Spinoza: Joy, sorrow, and the feeling brain*. New York: Harcourt.
- Elliot, C. 1998. *A Philosophical Disease: Bioethics, Culture, and Identity*.

- London: Routledge.
- Ellis, B. J. and Bjorklund, D. F. 2004. *Origins of the Social Mind: Evolutionary Psychology and Child Development*, New York: Guilford Press.
- Epicurus. 1994. *The Epicurus Reader: Selected Writings and Testimonia*. B. Inwood and B. Inwood eds., Indianapolis, IN: Hackett Pub Co.
- Hoggard, L. 2005. *How to be happy: lessons from making Slough happy*. London: BBC Books.
- Marcuse, H. 1964. *One Dimensional Man*, Boston: Beacon Press.
- Marinoff, L. 1999. *Plato Not Prozac: Applying Philosophy to Everyday Problems*. New York: Quill.
- Peterson, C. and Seligman, M. E. P. 2004. *Character Strengths and Virtu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Raabe, P. 2001. *Philosophical Counseling: Theory and Practice*. Westport, CT: Praeger.
- Wittgenstein. L. 1922. *Tractatus Logico-Philosophicus*, translated by C. K. Ogden.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 \_\_\_\_\_. 1963. *Philosophical Investigations*, translated by G. E. M. Anscombe, Oxford: Basil Blackwell.

## **Chung Am's idea as a provider of rules for logic-based therapy**

Young E. Rhee

A representative feature of post-industrial societies after the twentieth century is that they are materially affluent but mentally not. The purpose of the paper is to suggest the logic-based therapy that has discussed actively in philosophical therapy as a way of healing philosophical diseases which are rampant in the post-industrial societies and to analyze the ideas of Chung Am as a provider of rules or antidotes for the philosophical diseases. I shall start from the assumption that the nature of philosophical therapy consists in the innovation of thought and examine the logic-based therapy as a very appropriate model of philosophical therapy.

The paper goes as follows. In section two I shall examine the meaning of health of life briefly, suggest two types of diseases of mind and especially discuss the characteristics of philosophical diseases, and examine the identity of philosophical therapy in comparison to medical therapy and psychological therapy. In section three I shall examine the structure of practical inference shown in the logic-based therapy. Lastly, in section four, I shall discuss the idea of Chung Am at both philosophical level and ideological level and from them deduce the rules for logic-based therapy.

**Key words:** identity of philosophical therapy, philosophical disease, idea of Chung Am, logic-based therapy, humanities therapy

철학탐구 제31집

이영의 e-mail: rheeye@kangwon.ac.kr

투 고 일	2012년 03월 11일
심 사 일	2012년 05월 12일
게재확정	2012년 05월 21일